

4.13 선거 RUN·RUN·RUN

김성주 예비후보 “노인 기초연금 인상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사진)는 15일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는 노인 기초 연금을 차등없이 월 30만원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중 절반은 빈곤상태에 계신 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 공약을 어기고 노인빈곤 문제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10년째 한푼도 오르지 않은 노인일자리 수당도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7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어르신 70%에게 월 30만원씩 차등 없이 드리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어르신의 노후 걱정 덜어주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사이어얼협회 전 부회장이던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사진)는 15일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는 노인 기초 연금을 차등없이 월 30만원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노인 450명, 김성주 예비후보 지지 선언

도내 노인 450명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 받고, 노인을 존중하는 개탄스러운 사회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김성주 후보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 인상 등에 대한 노력을 보면 노인들의 소득과 건강, 사회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노후를 만들어 줘 효도하는 후보임을 확실하게 봤다”고 했다.

김춘진 예비후보 “고교무상급식, 무상교육 전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고교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전제 조건이다”고 했다.



김 후보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각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8개 시군(정읍,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6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전제했다. 전북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50% 예산을 이미 지원한 만큼, 일부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른 시일내에 전복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예비후보 “후보자 여론조사 적극 참여”

국민의당 김광수 예비후보(전주 을)는 15일 최근 실시되고 있는 모바일 여론조사에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듯 마음을 모두 비우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온 만큼 현명하신 전주 시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만을 기다리겠다”며 이번 여론조사 경선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특정 당이나 계파 중심의 ‘세습정치’와 ‘꽤거리 정치’로 인해 정치인은 주민 위에 군림하길 서슴지 않았고, 건전한 지방정치를 폐허로 만드는 주범으로 작용했다”면서 “그 같은 악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위대한 선택의 힘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서 예비후보 “전복을 확 바꾸겠다”

국민의당 김호서 예비후보(전주 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깨끗하고 당찬 김호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전복을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왜곡, 개성공단폐쇄, 냉전 부활 불통과 독선으로 민생이 파탄난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며 “민주당도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민주당 30년 동안 경제는 파탄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전복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철수와 함께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치도 바꾸고 사람도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전복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7명 중 6명 정치신인... 김관영 ‘기세몰이’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⑥군산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지역 선거구는 올해 초 크게 요동쳤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지난 1월 11일 김관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군산지역의 저울추가 국민의당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더민주당은 아권연대와 전략공천의 2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민만치는 않아 보인다.

15일 군산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채용목 예비후보(55, 군산산악연맹 상임부회장), 더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48, 전 민주당 부대변인), 조성원 예비후보(40, 법무법인 청운 대표변호사), 김명곤 예비후보(47, 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국민의당 김관영 예비후보(46, 제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조준호 예비후보(57, 전 정의당 초대대표), 무소속 함운경 예비후보(52, 군산비대립전 연구소 소장) 등 총 7명이다.

우선 관도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오가며 군산선거구의 흐름을 요동치게 하는 부분이다.

더민주 신영대·조성원 김명곤 예비후보 등 경합

정의당 조준호 후보 도전

함운경, 더민주 복귀 가능성

국민의당 김관영, 현역의원 이점과 함께 재선 고지 겨냥

특히 무소속의 함 예비후보가 더민주당 복당을 신청함에 따라 전략 공천으로 함 예비후보의 복당을 수락할 경우 군산지역의 더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함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의 양강 구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함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만 무려 8번에 도전하고 있어 나름 탄탄한 포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더민주당의 김윤태 전 국회의원관장 전략 공천 설도 호사기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더민주당의 공천 행배에 따라 이번 군산지역 선거 관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군산지역을 단수추천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채용목 법

무사를 공천 확정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군산시장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더민주당의 신영대 예비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치는 등 화려한 스펙과 각계각층의 풍부한 인맥이 강점이다.

더민주당 조성원 예비후보는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로스쿨을 나와 군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국선변호사를 지내면서 파산자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고통과 인내를 경험으로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더민주당 김명곤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과 사회연대네트워크 정책연구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사회 약자와 노동자 권익 대변으로 명성이 높다.

정의당 조준호 예비후보는 민주노총 6대 위원장과 정의당 1기 초대 공동대표, 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노동정책연구원소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군산포럼 대표로 있다.

군산지역 선거에 대해 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김제와 부인에 내준 새민금 할당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도 군산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與 친박계, 윤상현 용퇴 촉구... 유승민 죽이기?

새누리당 안팎서 동시 컷오프 시나리오 정설로 나온다... 음모론도 횡행

새누리당 친박계가 15일 윤상현 의원 용퇴를 일제히 나선 모양새다.

육실 녹취록 파문 초반만 하더라도 비박계의 ‘음모론’이러던 입장을 밝힌 친박계가 공천 막판에 와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친박계 중진 핵심 홍문종 의원은 이날 MIX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의원 문제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며 “억울하겠지만 지역 민심은 뒤숭숭하다”고 윤 의원의 컷오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홍 의원은 “사적으로 얘기한 거고 또 슬취한 상태에서 한 얘기고, 여러 가지로 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말이 안 되

는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는 지역 민심을 보면 엄청나게 윤 의원에 대해 야단을 많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선거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도권 시민들이 윤 의원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윤 의원이 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처럼 친박계가 일제히 윤 의원에 대한 용퇴를 들고 나오면서 윤 의원의 공지에 몰리는 형세다. 윤 의원은 일체 대외활동을 자제한 채 당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윤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컷오프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정설처럼 나돌고 있다.

특히 전날 이헌구 공관위원장이 ‘컷오프 3원칙’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품위 손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도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음모론도 횡행하고 있다. 친박계에서 눈엣가시인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는, 비박계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정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윤 의원을 동반 탈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친박계 핵심 인사는 뉴시스와 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두 사람이 다 살든지, 두 사람이 같이 죽든지, 동전의 앞뒤면 같은 그런 구도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2023 챔버리 새민금 유치 적극 돕겠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민)는 15일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2023 세계챔버리대회 새민금 유치를 적극 돕기로 했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대회 유치를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스카우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양성민 위원장은 “2023 세계챔버리대회 새민금에서 개최된다면 새민금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7년 8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반드시 전북이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9월, 2023년 세계 챔버리 대회 국내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폴란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된다.

“도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 전문직 교사 배치 ‘문제 있다’”

전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의 전문직 교사 배치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전북과학교육원의 일부 실험실과 관련돼 전공 전문직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강국 과학교육원장은 “정원구조 상 충원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도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과학 교육 및 과학영재교육 운영지도, 발명교육 등을 실시하는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다.

이곳에 일부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 2014년 9월 ‘수확체감센터’가 설치되면서 수확교사가 명 배치된 관계로 해당 교사 정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과학교육원에 과학과목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인사정책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장명식 의원은 “과학교육원에 과학과목 담당자가 없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정호영 의원은 “해당 과목 교사를 배치하는 않는 것은 도교육청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용모 위원장은 “수확체감센터가 들어설 때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원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교육청의 미흡한 인사정책을 질타했다.

더민주 청년비례 경선 후보자 ▲남성 후보 - 장경태, 김국민 ▲여성 후보 - 정은혜, 최유진

최 후보는 한림국제대학대학교 정치경영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김중민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태 공관위원과 이철희 비대위원이 해당 과정의 교수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중민 대표가 연구고문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이 운영지문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최유진 후보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청년과 청년당원을 위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당규에 규정하고 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생각으로 청년비례대표에 출마한 것이지, 특정 인사의와의 관계나 영향, 배정에 의해 즉흥적인 결정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청년비례대표 김규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이날 김 후보에 대한 재논의 결과 청년비례대표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을 박탈했다. 더민주주는 김 후보 대신 차점자인 김국민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정했다.

더민주 홍창선 공관위원장 청년비례 경선 후보자 심사

김규완·최유진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민주 공천관리위는 지난 14일 청년비례대표 경선 후보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남성은 장경태·김규완 후보를, 여성은 정은혜·최유진 후보를 각각 후보로 압축했다. 더민주 영입인사인 김빈 빈컴퍼니 대표는 면접 과정에서 떨어졌다.

당초 더민주의 비례대표후보자추천을 위한 비례후보자추천관리위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있었지만, 최근 당규 개정을 통해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확대, 홍창선 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문제는 4명으로 압축된 경선 후보 중 두 명이 각각 공천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규완 후보는 홍창선 공관위원장의 의문시절 보좌관이었던 이유로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홍창선 위원장의 17대 의원 시절 7급 비서로 4년간 근무했다. 특히 18대에는 새누리당 이윤성 의원실에서, 19대 초반에는 새누리당 영동열 의원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진 경선 후보는 특정 공관위원·비대위원들의 제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